

16

치근천공이 있는 경우에서 Apexogenesis 치험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정진호, 정일영

I. 서 론

일반적으로 미성숙 치근단을 가진 치아의 외상이나 치수의 노출을 동반했을 때, 치수생활력을 유지하면서 치근단의 발육을 유도하게 된다. $\text{Ca}(\text{OH})_2$ 를 이용하여 pulpotomy를 시행할 경우, 원래의 치수강 및 근관과 생활력이 있는 잔존 치수사이에는 종종 dentin bridge의 형성을 관찰 할 수 있다. 하지만, 치근에 천공이 일어난 경우, 그 천공 부위의 위치, 크기, 시간 등의 인자에 의해 적절히 처치되지 않는다면 인접 치주 조직의 손상을 가하고 미세누출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치수 생활력을 유지하거나 염증 상태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쉽다. 이에 외상을 받은 미성숙 치근을 가진 상악 중절치에 천공이 일어났으나 $\text{Ca}(\text{OH})_2$ 제재인 vitapex 등으로 장기간 처치하면서 dentin bridge의 형성과 정상적인 치근단 발육을 보이는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임상증례

1999년 1월 당시 10세 남아는 당일 공원에서 줄에 걸려 넘어져서 앞니가 나왔다는 주소로 본원 소아치과에 내원하여 Extrusive luxation of #21의 진단하에 resin-wire splint 시행한 후 1999년 2월 4일 국소마취하에 발수를 시행하였으나 1999년 2월 8일 vitapex filling 한 방사선 사진 결과 치근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후 2001년 5월 23일 보존과로 의뢰되기까지 주기적인 vitapex change를 시행하여, 감소된 동요도와 타진 반응에 정상 범위를 나타내었다. 2001년 5월 23일 보존과 내원 당시 치근단의 형성이 거의 이루어진 결과를 볼 수 있으며 냉온 검사에 음성반응을 나타내었다. 천공 부위라 생각되어지는 부위와 잔존 치수부위의 공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 좀 더 면밀히 치수 생활력을 검토한 결과 협면에서는 냉온 검사에 음성 반응을 보이지만, 구개면에서는 cold(+++)의 반응을 나타내어 치수 생활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 1월 15일 초진



1999년 2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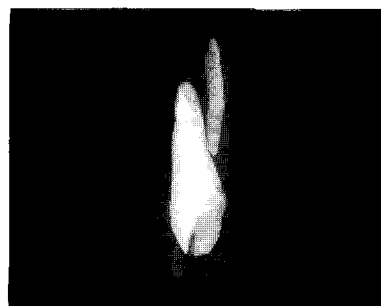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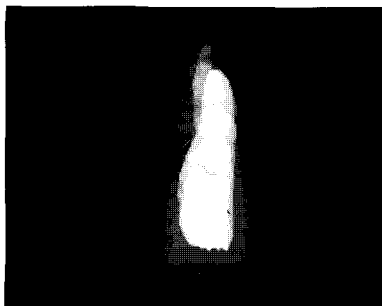
1999년 4월 26일



1999년 11월 25일



2001년 5월 23일



CT 3D image